

##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의 문학적 표현

장영창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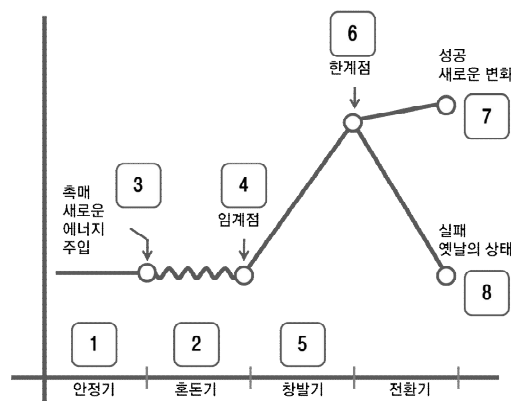
1. 서론
2. 영화의 서사적 흐름과 단절적 분석
  - 2.1. 안정기
  - 2.2. 촉매, 새로운 에너지 주입
  - 2.3. 혼돈기
  - 2.4. 창발기
  - 2.5. 전환기
3. 인물간의 관계 분석과 플롯의 다양화
  - 3.1. 인물 성격과 상징적 의미
  - 3.2. 인물 관계와 플롯의 변화
4. 당대의 현실과 예술적 형상화
  - 4.1. 역사적 소재의 소설화와 영상화
  - 4.2. 장발장의 상전이 현상과 예술적 표현
  - 4.3. 냉정한 법치주의의 좌절과 예술적 표현
5. 결론

## 1. 서론

2012년 12월 우리나라 영화관에는 톰 후퍼 감독의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기 위해 관객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영화 <레미제라블>은 3~40대 중장년층의 관람 비중이 높았고, 남성의 비중이 다른 영화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레미제라블>은 국내 관객 수 590만 명, 매출액 430억 원을 기록하였고, 역대 박스오피스27위(국내외 영화 통합), 외국 영화 역대 박스 오피스 10위를 기록했다.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레미제라블>의 한국 흥행 성적은 일본, 영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뮤지컬 영화가 성공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레미제라블> 이전에 한국에서 뮤지컬 영화로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작품은 <맘마미아>였다. 영화 <맘마미아>의 흥행 성공은 뮤지컬에서 비롯되었다. 2004년 예술의전당에서 초연된 뮤지컬 <맘마미아>는 매년 공연을 올렸고, 이는 2008년 영화 <맘마미아>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레미제라블>은 그렇지 못했다. 1985년 카메론 매킨토시가 연출한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공연은 1996년과 2002년 영국 오리지널팀이 내한했을 때에만 이루어졌다.

영화 <레미제라블>의 성공으로 인해 원작 소설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다시 읽기 열풍까지 이끌어 내었다. 뮤지컬 영화이면서 동시에 작품 전체가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 <레미제라블>은 관객들이 자주 접하지 못한 낯선 형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레미제라블>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원작 소설 <레미제라블>의 치밀한 서사성과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완성도 높은 예술성이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영상성을 높여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2012년 대선 직후 어수선한 한국의 사회적 배경이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다. 이처럼 한편의 영화 성공은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

이 글의 목적은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타나 있는 사건 진행의 프로세스와 영화적 표현에 있어서 기독교 사상의 문학적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혼돈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것이 창발 하는 과정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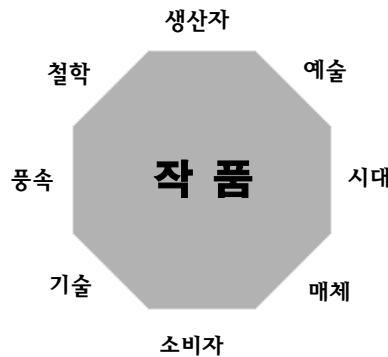


자료 1.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sup>1)</sup>

1) 윤영수, 채승병(2005),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 연구소. 183쪽.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는 통시적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흐름을 단절적으로 끊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축매 = 새로운 에너지 유입

영화 분석에 있어서 거시적인 전체 줄거리를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기독교 사상의 예술적 형상화를 살펴볼 것이다.

생산자는 자신이 경험한 현실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텍스트를 만들면서 그곳에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미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는 자신이 읽었거나 경험한 수많은 기존 텍스트를 바탕으로, 당대의 시대와 풍속, 철학과 예술, 매체의 특성에 상호작용하면서 독창적인 텍스트를 창조한다. 독자도 또한 삶의 현실 속에서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하면서 그 작품에 표현된 숨은 의미를 찾고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지평의 융합을 통해 작품의 세계를 풀이하며, 자신이 놓인 현실, 가치관, 세계관, 이데올로기, 지향의식 등에 따라 다채롭게 해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는 작품을 읽으면서 숨겨져 있는 작가의 의식과 상호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을 영화 <레미제라블>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 표와 같다.



자료 2. 작품의 소통 구조<sup>2)</sup>

영화	요소	특징	현실에 나타난 모습
영화 <레미제라블>	생산자	위고(서사성)+매킨토시(예술성)+툼후퍼(영상성)	여러 사람의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좋은 작품을 생산하게 됨
	소비자	30,40대, 남성	80년대 한국 민주화를 경험한 것이 영화 관람에 영향을 줌.
	기술	촬영, 녹음, 스피커의 기술 발달	기술발달이 뮤지컬 영화 제작에 도움을 줌.
	예술	영상매체의 뮤지컬 수용	뮤지컬은 고급예술이라 쉽게 대중화가 되기 어려운데, 영상과 결합하여 대중화에 성공함.
	시대	한국의 대선정국	박빙의 대결과 잘못된 기존의 정치 관행을 바꿔보고자 하는 열망이 흥행에 영향을 줌.
	매체	여론 형성	배우 캐스팅에 초호화 배우들의 지원과 현장녹음이라는 소문이 퍼짐.

외부적 섭동 = 외부에서 야기된 갈등  
 내면적 요동 =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급변기 = 창발기

2) 작품의 소통 구조란 하나의 작품안에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다양한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작품이나 사회 현상을 만들 의미를 지닌다.

	동영상	패러디 재생산	영화가 흥행함에 따라 패러디 동영상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또한 흥행에 더욱 영향을 주었다.
--	-----	---------	---

## 2. 영화의 서사적 흐름과 단절적 분석

영화 <레미제라블>의 이야기 구조를 전체 줄거리의 흐름과 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 2.1. 안정기



장발장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자 조카들을 위하여 빵 한 조각을 훔치다 걸려서 19년간 복역하게 된다. 징역생활을 하던 중 평생 자신을 쫓아 다니게 되는 경찰관 자베르를 만나게 된다. 이 시기는 장발장이 신앙이 없이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다. 조카에 대한 연민으로 빵을 훔치는 과오를 범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으며 세상에 대한 증오를 키우게 되는 악순환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림 1>

자베르가 장발장에게 넘어져 있는 프랑스 국기를 가져오라고 한다. 장발장은 프랑스국기가 걸려있는 무거운 나무를 괴력으로 혼자서 들어 올려 가져오고, 자베르는 장발장을 가석방시킨다. 하지만 가석방이라는 꼬리표는 장발장을 평생 족쇄로 채우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으며 평생 돌아다니며 경찰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그러던 중 한 수도원에서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대접받는다. 이에 고마워하는 것도 잠시, 내일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수도원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난다. 성령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의 습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그림 2>

다음날 장발장이 경찰에게 잡히자 주교님께서 가져가라고 준 것 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경찰은 장발장을 수도원으로 끌고 온다. 이러한 상황을 본 주교는 자신이 준 것이 맞다고 하며, 서둘러 나가느라 가장 비싼 은촛대를 두고 갔다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발장에게 은촛대까지도 준다. 그러면서 주교는 따스하고 진심어린 심정으로 장발장에게 말한다. “이 귀한 은촛대로 새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자네를 어둠에서 구했으니 자네 영혼을 그분께 맡기게나!” 장발장은 주교를 뵈면 목도 없었는데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경찰에게서 자신을 구원해준 주교에게 진심으로 감동한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물어 보게 된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장발장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된다. 장발장은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 왔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함을 24601 죄수 번호가 적힌 가석방 종이를 찢는 것으로 상징화 하였다. <그림 3>

## 2.2. 촉매, 새로운 에너지 주입



8년 후, 장발장은 몽트뢰이유의 마들렌 시장이자 공장주인이 된다. <그림 4> 그러던 중 자베르가 장발장이 시장으로 있는 곳에 담당 경감으로 오게 되면서 8년 만에 재회하게 된다. <그림 5> 장발장과 자베르가 이야기를 하던 중,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포슬르방 노인이 수레에 깔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장발장은 자신의 괴력으로 수레를 들어 올려 노인의 생명을 살려준다. 장발장은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도둑이었던 옛 자아의 모습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장 주인으로 그리고 마차에 깔린 서민을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해주는 헌신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림 6>

## 2.3. 혼돈기



자베르는 마들렌 시장을 가석방 중에 도망친 장발장이라고 생각하여 파리에 있는 경찰청에 마들렌 시장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하였다. 자베르가 의뢰한 뒷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죄인 장발장은 이미 잡혔고 곧 재판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자베르는 자신의 경솔한 의심에 대해 자신을 처벌하라며 장발장에게 자백하고, 장발장은 내심 당황하게 된다. <그림 7>

자베르의 보고를 들은 장발장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모른 척 하면, 자신은 평생 도망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는 무고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지 고뇌하게 된다. 결국 장발장은 자신을 믿어준 하나님께 양심상 거짓을 고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재판장으로 찾아가서 자신이 장발장이라고 고백한다. 주교와의 만남이 개인적 결단이라며, 법정에서의 자신의 정체에 대한 고백은 대인(對人)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주교와의 만남과 결단은 나

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법정에서의 결단은 나와 무고한 시민과 얽힌 문제로 내가 외면하면 나 대신에 무고한 시민이 형벌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 장발장은 갈등하며 결단을 내리게 된다. <그림 8>

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판틴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판틴이 임종할 때에, 장발장은 판틴의 딸인 코제트를 데리고 와서 자신이 직접 키울 것을 약속한다. 장발장은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와하는 것도 잠시, 자신보다 더 형편이 어렵고 불쌍한 판틴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그림 9>

#### 2.4. 창발기



드디어 예고된 혁명이 시작되었다.<그림 10> 혁명군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집에 있는 가구들을 방패삼아 혁명을 준비한다. 경찰들의 작전대로 자베르는 혁명군에 가담하여 엽담꾼을 자처하며, 혁명군에게 엉터리 정보를 흘린다. 그러나 자베르를 만난 적 있는 가브로슈에 의해 정체가 들통나고, 자베르는 혁명군에게 잡히게 된다.<그림 11> 자베르의 거짓 정보와는 다르게, 그날 저녁 경찰들의 갑작스런 공격이 시작된다. <그림 12> 총탄이 오고가는 치열한 전투 속에, 마리우스가 총에 맞을 위기에 처하자, 코제트의 편지를 전해주러 온 에포닌이 경찰의 총구를 자신의 가슴으로 향하게 하여, 사랑하는 마리우스를 대신해 총에 맞아 죽는다.<그림 13> 에포닌과의 최후의 작별을 한 마리우스는 에포닌이 전해준 코제트의 편지를 읽는다. 그리고 마리우스는 가브로슈에게 편지 한 통을 코제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장발장은 자신의 딸, 코제트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음을 편지를 통해 알게 된다.<그림 14>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만나러 혁명군에 지원병으로 들어간다. 혁명군에는 이미 지원병이라고 사칭한 경찰 자베르가 있었으므로 경계가 삼엄했지만, 가브로슈의 도움으로 무사히 혁명군에 들어가게 된다. 혁명군에게 잡힌 자베르를 만나게 된 장발장은 자신이 자베르를 처리하겠다고 구석으로 끌고 가서 자베르를 몰래 풀어준다.<그림 15> 자베르는 차라리 지금 자신을 죽여서 영원한 자유를 찾으라고 하였다. 자베르는 장발장과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면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장발장은 아무런 조건도, 흥정도, 원망도 없이, 자베르는 ‘오직 경찰이라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라고 자베르의 행동을 인정하며, 장발장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며 자베르를 풀어준다. 장발장은 이에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보복의 유혹을 벗어났다. 장발장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하심과 같이 장발장도 자베르를 용서하여 주었던 것이다.

#### 2.4. 창발기



다음날 날이 밝으니, 혁명군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다른 시민들은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다. 아침부터 경찰들이 몰려와 전쟁을 하게 되었지만 화약이 비에 젖어 사용할 수 없었다. 남아있는 화약을 구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넘어온 가브로슈가 경찰의 총에 맞아 죽게 된다.〈그림 16〉 이를 계기로 총격전이 시작되지만, 경찰의 대포에 의해 혁명군의 바리케이트는 바람앞의 등불처럼 너무나도 쉽게 파괴된다. 사람 수, 무기 등 모든 면에서 밀리는 혁명군은 끝까지 저항하다 모두 죽게 된다. 〈그림 17, 18〉 장발장은 총에 맞아 기절한 마리우스를 하수구를 통해서 구해낸다. 하지만 이를 눈치 챈 자베르는 하수구 구멍에서 장발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림 19〉 혁명군에게 잡혔던 자베르를 장발장이 풀어 주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자베르가 장발장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장발장은 자베르에게 마리우스는 죄가 없으며, 총에 맞아 위급하니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하고는 자베르가 보는 앞에서 마리우스를 업고 지나간다.〈그림 20〉 장발장을 체포하지 못하고 살려서 보내준 자베르는 '자신이 관철시켜오던 정의가 장발장에 의해 부서진 것이다. 그가 베푼 자비가 결국 나를 죽인 것이다'라는 말을 남긴 채 자살을 택하게 된다. 〈그림 21〉

#### 2.5. 전환기

장발장에 의해 목숨을 건진 마리우스는 혁명에 동참한 친구들은 모두 죽고 자신 혼자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낸다. 코제트는 고통속에 있는 마리우스를 지극 정성으로 간호해 준다. 이러한 정성에 마리우스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코제트와 사랑을 이어나간다. 〈그림 22〉 장발장은 코제트 몰래 마리우스를 따로 불러내어,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한다. <그림 23> 자신과 함께 있다면 자신은 경찰에 체포당할 것이고 그로 인해 창피함을 느끼게 될 코제트를 걱정한다. 코제트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조용히 떠난다. 나중에 장발장이 수도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우스와 코제트가 장발장을 찾아가지만, 장발장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위독한 상태였다. 장발장은 자신이 죽기 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코제트와 마리우스를 봐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코제트 덕분에 자신은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는 말을 남긴 후, 판틴의 곁으로 떠난다. <그림 24> 장발장이 임종하는 순간을 천년왕국이 실현 되는 모습으로 상징화 하였다. 수많은 민중들이 함께 나와 희망을 노래한다. 희망의 노래를 다시 들어 보면 중반에 나온 혁명의 노래와 곡이 비슷하면서 가사가 달라진다. ‘쟁기를 끌며 걸을 것이며, 칼을 치워버릴 것이며, 억압의 사슬이 깨어질 것이며, 주의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천년 왕국의 비전을 노래하고 있다. 장발장과 민중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상징화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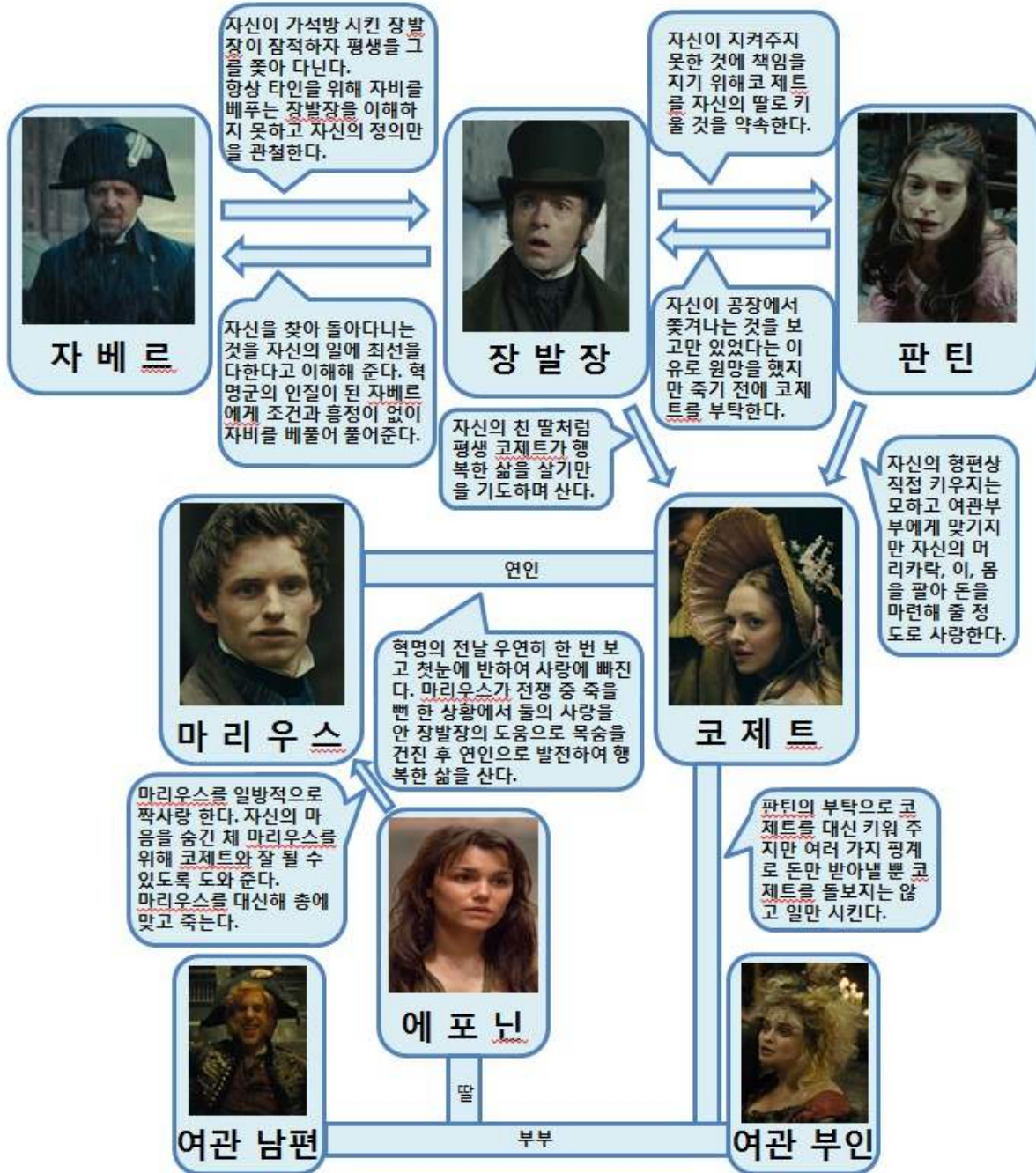
### 3. 인물의 성격 분석과 플롯의 다양화

기존의 문학연구에서는 인물 분석을 개인의 성격위주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신앙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인물의 행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 3.1. 인물 성격과 상징적 의미

	<p>장발장, 죄수 번호 24601. 조카를 위해 빵 하나를 훔쳤다가 19년을 복역하게 된다. 가석방 후 주교의 사랑과 관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그 후, 자베르에게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판틴과의 약속대로 코제트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간다. 죽음에 처한 자베르를 용서하며 풀어준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인 장발장은 성화의 삶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p>
	<p>경감 자베르는 사회적 정의만을 위해 사는 냉정한 법치주의자이다. 자비란 없으며, 오직 사회적 정의만을 지키려고 한다. 하수구에서 장발장을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잡지 못하고 놓아주게 된다. 자신이 철저히 지키던 사회적 정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자살을 택한다. 자베르의 자살은 냉정한 법치주의의 좌절을 상징한다.</p>
	<p>장발장이 경영하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질투가 많은 다른 여자들에게 의해 숨겨 놓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공장에서 냉정하게 쫓겨난다. 딸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머리, 이, 심지어 몸까지 팔게 된다. 건강이 급작스럽게 악화된 판틴은 장발장에게 코제트를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판틴은 가난으로 인해 파멸되어 가는 가련한 인생을 상징한다.</p>
	<p>판틴의 딸이며, 어릴 때 여관부부에게 위탁되어, 많은 구박을 받고, 힘든 노동만 하며 살다가, 장발장의 도움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 코제트는 장발장을 자신의 아버지로 알고 존경하며, 아버지를 잘 따르는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코제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을 상징한다.</p>
	<p>부잣집의 아들이자 혁명군의 리더이다. 혁명 하루 전날 첫눈에 코제트에게 반하여 사랑에 빠진다. 혁명을 주도할 만큼 리더십이 강하고 행동력이 좋다. 장발장의 헌신으로 혁명군 중 혼자만 살아남게 된다. 코제트의 진심어린 간호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코제트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p>

### 3.2. 인물 관계와 플롯의 변화



영화 <레미제라블>에서는 ‘장발장과 자베르의 대립과 갈등’이 중심 플롯이다. 여기에다가 ‘나는 누구인가’를 외치며 정체성에 대해 괴로워하는 장발장의 내적 갈등이 부분 플롯으로 작용한다. 과거 죄수 장발장에서 마들렌 시장으로, 코제트의 아버지로 바뀌는 장발장의 삶의 궤적을 따라,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던 자신의 과거 행적이 표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가 갈등하는 것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다.

또한 장발장과 자베르의 추격과 도망의 긴박함과 함께,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여 이야기가 다변화 되고 보조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전체 서사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다양한 인물과 사건은 영화 <레미제라블>의 서사가 전개되면서, 중심 플롯을 더 강화하거나, 중심 플롯을 코믹하게 또는 낭만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내일’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내일이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이고, 어떤 이야기는 한탕 벌어보고자 하는 음흉한 사기꾼의 이야기며, 어떤 이야기는 민중의 힘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로 표현된다. 그러나 결국 그 ‘내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 내일의 세상을 꿈꿨던 바람은 모두 부정되었다. 내일 이 곳을 떠나려 했던 이들 (장발장, 코제트)은 떠나지 못했고,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었던 가슴 아픈 사랑(마리우스, 코제트)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이들(학생혁명단)은 죽음을 당했고, 한탕 사기치려던 이들(페나르디에 부부)는 실패했다. 그 중에서 자베르만이 시위단을 소탕하려 했던 어제(내일)의 바람이 오늘 성공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하게 내일의 바람이 이루어진 자베르는 바리케이트 안에서 장발장이 자신을 풀어 주는 것을 경험하고, 죽은 가브로쉬 가슴에 자신의 훈장을 내려놓을 때, 마리우스를 업은 장발장을 쏘지 못했을 때, 자베르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탱해 온 법과 정의의 수호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게 된다. 자신이 굳게 믿어 온 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흔들릴 때, 자베르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포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로써 ‘장발장과 자베르의 대립과 갈등’이 중심 플롯은 끝나게 된다.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된다. 자신을 집요하게 추격해 오던 자베르가 없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장발장은 결국 마리우스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간다. 자신의 과거와 이름이 자신의 실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장발장은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 주고 싶었던 코제트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나는 누구인가’하는 정체성 문제의 보조 플롯이 비로소 해소되는 것이다.

## 4. 당대의 현실과 예술적 형상화

### 4.1. 역사적 소재의 소설화와 영상화

현실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풍속, 예술, 철학, 매체, 기호, 세계관, 권력 및 이데올로기, 형식과 구조, 시간의 개입 내지 매개로 인하여 변형된다. 해석의 과정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sup>3)</sup>.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당대의 역사적 배경은, 1789년에서 1799년에 이르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1815년의 제 2차 왕정 복고기에서 시작하여, 1832년 6월 봉기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혁명 시기이다. 위고는 6월 봉기가 일어난 1832년 6월 5일에 툴리리 정원에서 희곡을 집필하다가 총소리를 듣고 바리게이트로 피했던 경험이 있다. 그 후 위고는 1845년부터 소설 <레미제라블>의 집필을 시작하여 1862년에 출간하였다.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은 나폴레옹 1세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1815년에 시작하여 6월 봉기를 절정으로 하고 1834년에 끝난다.<sup>4)</sup>

여기서 현실은 혁명이 왕정복고로 유린당하고 무지와 빈곤으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민중들과 이를 정당화 하는 그들, 곧 부조리한 법과 제도 등의 당대의 사회적 현실, 프랑스 만의 앙시앵 레짐<sup>5)</sup>이다. 위고는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들 즉, 민주공화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와 망명이라는 급박한 정치 현실을 소재로 하여, 부조리한 세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진보의식과 혁명으로 세계를 재질서화 하고자 하는 정치의식을, 당대의 기독교적 휴머니즘을 가미하여 당시 풍미하던 낭만주의 소설 양식으로 재구성하였다.

빅토르 위고는 그의 책 서문에서, 그곳은 '무산계급의 의한 남자의 추락, 기아에 의한 여성의 타락, 암흑에 의한 어린이의 위축, 이 시대의 세 가지 문제'<sup>6)</sup>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영화 <레미제라블>는 장발장(휴 잭맨), 판틴(앤 해서웨이), 코제트(아만다 사이프리트)를 중심으로 세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장발장이 죄수로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판틴이 머리를 깎고 이를 뽑고 창녀로 전락한 장면, 코제트가 힘들게 청소를 하고 물을 길는 장면을 통하여 부조리한 사회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첫째 남자의 추락은 장발장이 굶주리는 조카를 살리려 빵을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살이한 것으로 보여 주었다. 배를 끌어올리는 첫 장면에서 도크는 국가, 이 꼭대기에서 죄수를 내려다보는 자베르와 간수는 지배층, 죄수들은 피지배층, 시선과 채찍은 감시, 바닷물은 시련,

3) 이도흠, 『역사 현실의 기억과 흔적의 텍스트화 및 해석-화쟁기호학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 19집, 한국기호학회, 2006년 6월. pp.139-170.

4) 최갑수, 『레미제라블과 프랑스 혁명』,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 다시 보는 프랑스혁명사 4강』, 2013년 4월 3일, 참고함.

5) 앙시앵 레짐, 앙시앵 레짐은 프랑스어로 '구(舊)제도'라는 뜻이다. 프랑스혁명 이전의 절대왕정기의 사회체제를 가리키는 프랑스 말로, 당시 절대군주가 소수의 승려, 귀족 등과 결탁하여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농민과 시민을 억압한 정치질서를 뜻한다. 이것은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와 같이 많은 특권을 소유하는, 즉 특권계층의 존재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불만을 의미하는 말이다.

6) 빅토르 위고, 정기수 옮김 『레미제라블』 1권, 민음사, 2012, p.5

사회의 법률과 관습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여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신성한 인간의 운명을 불행하게 만들게 하는 한, 그리고 이 시대의 세 가지 문제, 프롤레타리아라는 이유로 남자가 버림받고, 굶주림으로 여자가 타락하고, 어두운 현실로 인해 아이들을 부랑아가 되는 이 시대의 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지상에 무지와 가난이 존재하는 한, 이와 같은 책들은 유용할 것이다. -1862.1.1 빅토르 위고-

배와 밧줄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스런 노동, 식사슬은 그들을 억압하는 법과 제도, 더 나아가 양시앙 레짐을 뜻한다. 다 헤진 옷을 입고 지치고 고통스런 얼굴을 한 죄수와 멋진 정복을 입고 유들유들한 얼굴을 한 간수의 대조,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 깔은 죄수와 예리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감시하는 간수의 대조, 씬 없이 죄수들을 향해 밀려드는 파도와 죄수들의 얼굴과 옷에 쏟아지는 밝은 햇빛의 대비를 통해 당시 피지배층과 지배층 사이의 갈등과 대립 구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피지배층은 가혹한 시련을 당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동을 하고, 지배층은 이를 감시하고 관리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들의 노동을 수탈하고 자유를 억압한다. 여기에서 부르는 음악 <Look down!>은 ‘그들이 영원히 노예로 살 것이며, 여기가 바로 자신들의 무덤’이라는 가사로 피지배층의 암울한 삶과 미래를 영화적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다.

둘째 여성의 타락은 순진한 처녀였던 판틴이 남자에게 쾌락의 대상으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후, 자신이 삶을 유지하던 집단으로부터 배제되어 창녀로 전락하고, 결국 절망과 병으로 죽는 모습으로 표현 하였다. 판틴은 이 처절한 상황에서 <난 꿈을 꾸었어요(I dreamed a dream)>를 부른다. 여기서 그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옥과는 다른 모습이라 하고, 지금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 하고 꿈꾸어 왔지만, 이제 삶은 내가 꿈꾸던 꿈을 죽여 버렸네.(I had a dream my life would be / so different from this hell I'm living / so different now from what it seemed / Now life has killed the dream I dreamed)”라고 노래하며, 현실의 비참한 삶과 세계의 부조리로 인하여 모든 꿈을 상실한 당대 민중의 절망적인 삶을 재현한다.

셋째 어린이의 위축은 아무 죄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인 코제트가 비열한 사기꾼인 여관집 부부에게 맡겨져, 양육비를 매달 물면서도 비참한 몰골을 한 하녀로 물을 길고 청소를 하며 시련을 겪는 모습을 통해 제시하였다. 코제트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구름 위의 성(Castle on a cloud)>을 부른다. 구름 위의 성은 눈물도, 청소도, 야단치는 사람도, 외로움도 없는 곳이다. 당시 어린이가 따스한 사랑과 놀이를 원하지만, 어른들로부터 야단을 맞고 일에 시달리고 시련과 고독을 겪으면서 신음하고 있음을 묘사<sup>7)</sup>하고 있다.

---

7) 이도흠, 『신자유주의 체제의 맥락에서 <레미제라블>의 화쟁기호학적 읽기』, 문학과 영상학회 2013-봄 학술박람회. p.36.

## 4.2. 장발장의 상전이 현상과 예술적 표현



장발장은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을 훔쳤다가 19년의 감옥생활을 한 후에 세상을 증오하게 된다. 그러던 중 미리엘 주교의 관용과 사랑으로 인해 거듭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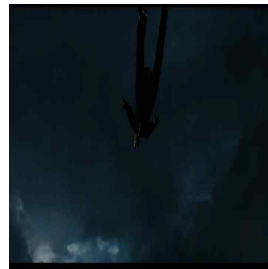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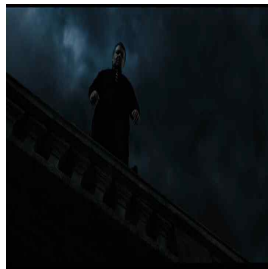
거듭난 장발장의 내면세계를 잘 표현한 독백의 노래가 <무슨 짓을 한 걸까(What have I done?)>이다. 장발장은 참회와 번민이 뒤범벅이 된 채, 이 노래를 부른다. 미리엘 주교로부터 용서를 받고 관용으로 포용된 후, 지금까지 도둑질을 하고 세상과 사람을 증오한 인생을 참회하고 “이제 장발장의 세계를 떠나리. 장발장은 아무 것도 아니야, 이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하리.(I’ll escape now from the world / from the world of Jean Valjean / Jean Valjean is nothing now / Another story must begin!)” 라며 새로운 자아로 거듭난다. 그가 추구하는 대상은 사람들의 구원과 자선이며, 이름도 마들렌으로 바꾼다. 새사람이 된 장발장은 포슐르방을 비롯한 많은 시민에게 사랑과 자선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준다. 장발장은 판틴과 만난 이후, 자베르의 시선과 감시를 피해 가면서 타자를 위해 자선과 구원을 베풀다. 영화 후반부에 와서는 장발장이 사랑하는 대상이 코제트에게로 집중된다. 코제트를 위해 마리우스를 살리러 바리게이트로 들어가게 되고, 혁명에 가담하며 위험에 처한 마리우스를 구한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장발장은 예수의 재림으로 비교될 정도의 성인으로 상전이된 삶을 살게 된다.

미리엘 주교의 사랑과 관용을 받은 장발장은 포슐르방, 판틴, 코제트, 자베르, 마리우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른다.

장발장 회심하고 나아가는 것을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안정기 - 장발장이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동안의 시기.
- ② 혼돈기 - 조카의 생계를 위해서 빵을 훔침, 투옥과 탈옥, 19년의 감옥생활.
- ③ 촉매, 새로운 에너지 주입 - 가석방, 사회에 나와서 냉대 받음.
- ④ 임계점 - 주교의 관용과 사랑을 체험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음.
- ⑥ 창발기 - 포슐르방을 구해줌, 판틴 치료, 코제트를 양육, 마리우스 도움, 자베르 살려줌

#### 4.3. 냉정한 법치주의의 좌절과 예술적 표현



자베르는 오로지 법에 따라 심판하는 냉정한 정의의 사도다. 그는 <별Star>이란 노래를 통하여, ‘계절이 바뀌어도 늘 제 자리를 지키는 별처럼, 전 생애를 걸고 장발장을 쫓아 법의 심판을 내리겠노라(You know your place in the sky / You hold your course and your aim / And each in your season / Returns and returns / And is always the same / And if you fall as Lucifer / You fall in flame!’고 노래한다. 그는 올곧은 법의 집행자 이기는 하지만, 인간에 대한 연민도 자비도 없는 냉혈한 인간으로, 인간이라기보다 당시 사법 시스템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자베르는 장발장과 치열하게 맞선다. 자베르에게 장발장은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24601 죄수이다. 장발장에게는 ‘자베르라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적대자다. 자베르는 쫓고 장발장은 숨는다. 자베르는 법대로 심판하려고 하며, 장발장은 자베르를 피해 도망가면서도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 장발장은 회심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베르를 용서하고 살려준다. 자베르는 자신에게 관용을 베푸는 장발장에게서 예수와 같은 성인의 품성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자신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여 평생을 쫓아다녔던 장발장이 목숨을 걸고 마리우스를 구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베르의 혼란과 당혹함을 영화에서는 벼랑과 같은 난간을 오고 가는 긴장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자베르는 이 장면에서 자신의 혼란과 자아 상실을 <독백(Soliloquy)>에 담아 부른다. 이 노래는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로부터 용서를 받고 혼란한 장발장이 불렀던 독백인 <무슨 짓을 한 걸까?(What have I done)>와 같은 곡이다.

미리엘 주교로부터 구원을 받은 장발장이 세상과 인간을 증오하며 도둑질을 일삼았던 자신을 참회한 반면, 장발장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베르는 법의 심판만이 정의라는 신념으로 살았던 자아를 해체하게 된다.

“자신의 추적을 당하며 절망 속에 있던 장발장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자유를 주었다.

자신이 알던 세상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This desperate man whom I have hunted / He gave me my life. He gave me freedom / The World I have known is lost in shadow.)”라면서 자베르는 비극적인 자살을 택한다. 기계적이고 냉정했던 법치주의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에 의하여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상징적<sup>8)</sup>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자베르의 일생을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안정기 - 간수로서 생활과 경감으로 승진
- ② 혼돈기 - 존경하는 시장이 장발장이라는 사실.
- ③ 촉매, 새로운 에너지 주입 - 학생 시위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혁명단에 잠입.  
정체가 탄로 나서 포로로 붙잡힘.
- ④ 임계점 - 혁명단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서 장발장이 풀어줌.
- ⑥ 창발기 - 냉정한 법치주의의 한계로 인한 해체

## 5. 결론

이 글은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타나 있는 사건 진행의 프로세스와 기독교 신앙의 문학적 표현을 위주로 살펴 보았다.

영화 <레미제라블>의 서사적 진행 과정을 ‘안정기-혼돈기-급변기-새로운 질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장발장의 마음이 변하는 상전이 현상을 <무슨 짓을 한 걸까(What have I done?)>라는 독백의 노래로 표현한 것을 분석하였다. 장발장은 참회와 변민이 뒤범벅이 된 채, 이 노래를 부른다. 미리엘 주교로부터 용서를 받고 관용으로 포용된 후, 지금까지 도둑질을 하고 세상과 사람을 증오했던 인생을 참회하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상황이 예술적으로 형상화 되었다. 그리고 자베르는 오로지 법에 따라 심판하는 냉정한 법치주의자이다. 자베르의 자살은 기계적이고 냉정했던 법치주의가 장발장의 사랑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예술적으로 상징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8) 이도흠, 『신자유주의 체제의 맥락에서 <레미제라블>의 화쟁기호학적 읽기』, 문학과 영상학회 2013-봄 학술박람회. p.40.



## 참고문헌

### <영화>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 , 2012

영국에서 제작한 뮤지컬 영화로서 한국에는 2012.12.18.에 개봉하였다. 총 상연시간 158분이며, 감독은 톰 후퍼이고, 주요 출연자는 휴 잭맨, 러셀 크로우, 아만다 사이프리트, 앤 해서웨이 등이다.

### <논문과 단행본>

김지영, 『뮤지컬에서 나타나는 확대된 노래형식에 관한 연구 :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One Day More>와 뮤지컬 「렌트」의 <Christmas Bells>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2009.

김혜원, 『한국 뮤지컬 영화의 흥행실패 요인에 관한 내용 분석』, 씨네포럼 Vol.12, 2011.

강수현, 『뮤지컬 <레미제라블>분석을 통한 음악의 극적기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실용음악대학원, 2010.

이도흠, 『신자유주의 체제의 맥락에서 <레미제라블>의 화쟁기호학적 읽기』, 문학과 영상학회 2013-봄 학술박람회 자료.

윤영수, 채승병,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 연구소, 2005.

### <기사>

양지현, 노래하라 우리의 인생을 뮤지컬에서 영화로 다시 태어난 <레미제라블>, 씨네21, 2012-12-20,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2119](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2119)

장영엽,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끌어냈다” 휴잭맨 인터뷰 기사, 씨네21, 2012-12-04,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1947](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1947)

정한석, [신 전영객잔] 군중의 기억으로 ‘따고 들어가’다, 씨네21, 2013-02-07,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2541](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2541)